# “숨겨왔던 장기와 끼 맘껏 발산”

## 동광중학교 2011년 빛오름 축제 20~21일 개최 … 이웃돕기 음식 바자회 눈길

꿈 많고 추억으로 가득하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자신이 다 컸다고 생각하나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어설픈, 그래서 더욱 관심이 가는,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시기인 소중한 학창시절.

동광중학교 학생들이 바쁜 학교생활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숨겨왔던 장기와 끼를 발산하는 시간인 2011년 빛오름제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에 걸쳐 열렸다.

지난 20일 열린 동광중학교 빛오름축제에서 학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20일 개막식 및 전시장 관람으로 막이 오른 2011년 빛오름제는 모둠별 대항 내가 최고, 모둠별 요리만들기 및 뷔페식으로 전시, 불우이웃돕기 음식 바자회, 선생님 탐구 퀴즈대회, 빛오름제 공연 등이 펼쳐졌고, 21일 추계 체육대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중 불우이웃돕기 음식 바자회에서는 전교생이 4~5명씩 한 조로 한가지 음식을 만들어 복도에 뷔페식으로 30종류의 간식을 차려놓고 전교생이 시식 후 자유롭게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성금을 모았다. 학생회는 이렇게 모금된 성금으로 위문품을 구입해 양로원을 방문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회는 위문품 전달뿐만 아니라 춤과 노래 등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을 흥겹게 만들었다.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 벌 되는 학생들의 재롱에 흐뭇해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틀간의 행사 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빛오름제 공연이었다. 2시간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재능과 끼를 부모님과 선생님 등 관람자들에게 마음껏 보여줬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사물놀이, 가요, 리코더 연주, 댄스, 연극, 뮤지컬, 플룻 연주, 교사 피아노 연주, 교사무대, 뮤직비디오, 학생회 활동영상, 2011년 교육활동 영상 등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인기가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공연에는 환호성과 웃음바다의 물결이 이어져 다소 삭막해지고 있는 교육현실을 무색케 했다.

학생들은 공연 중간에 다소 실수를 하고 덜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도전정신과 다양한 실험정신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한걸음씩 발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광연 기자

## 명태축제 공연 ‘푸짐’

### 축제기간 매일 저녁 7시~9시 열려
### 김수희 · 송대관 출연, 군민노래자랑

제13회 고성명태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가운데 축제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메인무대에서 어선불꽃놀이와 함께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은 김수희, 송대관 등 A급 가수와 개그맨, 아이돌 등이 출연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첫째날인 27일에는 ‘애모’, ‘너무합니다’, ‘남행열차’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김수희를 비롯해 ‘꽃을 든 남자’의 최석준, ‘우지마라’의 김양 등 총 10명의 가수가 출연한다.

둘째날인 28일에는 웃찾사 개그맨들이 대거 출연해 팬사인회를 갖고,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레크레이션을 진행한다. 또 ‘나성에 가면’으로 유명한 초청가수 권성희와 여성 섹시 댄스팀 공연이 열린다.

셋째날인 29일에는 여성 섹시댄스팀과 비보이, 초청가수 블락비 공연이 진행되고, 엔딩공연으로 송대관이 출연한다. 마지막날인 30일에는 초청가수 이태호 공연과 고성군민 노래자랑이 열린다.

최광호 기자

## 원광연 기자의 낱말 맞추기

※정답을 적어 우편(219-80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고성신문사 낱말맞추기 담당자 앞)이나 팩스(☎033-681-1668)로 보내주시면 1명을 추첨해 농협상품권(5천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도착한 정답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당첨자는 다음호 신문에 발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호부터 ‘원광연 기자의 낱말맞추기’ 코너를 선보입니다. 이 코너는 본지 원광연 기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제출하게 됩니다. 문제에 넣고 싶은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681-1666)

| | | | | | | | | | |
|---|---|---|---|---|---|---|---|---|---|
| 1 | | 2 | | | | 3 | 4 | | |
| | | | | | | | | | |
| | | 5 | | 6 | | | 7 | 8 | |
| 9 | | | | 10 | |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13 | | | | | | | | |
| | | | | | 14 | | | 15 | 16 |
| | | | 17 | | | | | | |
| | 18 | | | | | | | 19 | |

### 가로열쇠

1. 고성군에 본사를 둔 유일한 지역신문. 창간이념은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다.
3.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고성지역 특산물 축제로, 오는 27일부터 개최된다.
5. 털이 있고 갈색을 띤 다년생 식물. 비빔밥의 재료로 사용된다.
7.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음. 연예인 김장훈이 대표적 사례다.
9. 연예인 강호동이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렀다.
10. 조선시대 문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하사하던 종이꽃.
12. 왕의 아내.
14. 기왕이면 ㅇㅇ 치마.
15.일본 씨름.
17. 일만이천봉을 지닌 명산. 현재 북한에 있음.
18.다시 결혼함.
19.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

### 세로열쇠

2.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두드리던 북.
4.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
6. 손수레.
8. 오륜(五倫)의 하나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다는 뜻.
9. 한글을 만든 조선시대 제4대 왕.
11.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 한번 성한 것이 얼마 못가서 쇠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같은 현상이나 일이 한두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14. 정약용의 호.
16.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정치가. 마오저뚱.

☞ 정답은 다음호 신문에 당첨자와 함께 발표됩니다.
☞ 문의 : 원광연 기자(033-681-1666)